

---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혼성적 감각에 대한 연구

Mixed sense of the media installation work

방은정, Eunjung Bang\* , 최영선, YoungSun Choi\*\* , 윤준성 , Joonsung Yoon\*\*\*

---

**요약** 6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아트의 활성화는 이전 예술 형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그 형태도 다양해졌음은 물론, 최근 예술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형태인 '혼성 (mixture)'에 그 발걸음을 맞추어 미디어와 다른 장르를 혼합하여 표현된 작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형태 중에서 조형물 위에 빔 프로젝트를 투사한 작품에 대해서 분석한다. 영상 매체는 매체적인 특성상 다른 장르와 융합이 용이하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영상 매체를 응용한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은 영상 매체와 조형물이 이루어낸 혼성 작품으로, 각기 환영과 물질을 다루는 개별적인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융합된 분야로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매체의 환영적 특성이 조형물의 물질성과 어우러져 몸에게 혼성적 감각을 느끼도록 해주는 효과에 대해서 모리스 메를로 뽕피의 감각론과 결부지어 설명한다.

**Abstract** ~ Since the middle of the 1960's, revitalization of the media art has showed a new paradigm shift as a alternative to existing art genre. According to advances in technology the form of art becomes various. Nowadays, art work which is mixed with media and other genre is popular because of hybrid culture. The image medium has flexibility to incorporate with other genre because of medium character. The media installation that applied the image medium means to mixed work of sculpture and media. The sculpture and media has been broadened the field through the media installation. this study discuss art works projected image on sculpture among various media installation works. The materiality of the sculpture and the vision of the image mix up each other. It is associated with M. Merleau-Ponty's sens theory.

**핵심어:**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공감각, 물질성, 환영, *The media installation, Synesthesia, materiality, the vision of image*

---

본 논문은 한국과학재단(KOSEF)의 특정기초연구(No. R01-2006-000-11214-0)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주저자 : 송실대학교 미디어 학과 석사 과정 e-mail: tiger-bang@hanmail.net

\*\*공동저자 : 송실대학교 미디어 학과 박사 과정 e-mail: pandora@maat.kr

\*\*\*교신저자 : 송실대학교 미디어 학과 교수; e-mail: jsy@ssu.ac.kr

## 1. 서론

6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 아트의 활성화는 이전 예술 형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해졌으며 최근 예술계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형태인 '혼성(hybrid)'에 그 발걸음을 맞추어 미디어와 다른 장르를 혼합하여 표현된 작품들이 각광받는 시기이다. 다양한 혼성 미디어 작품 가운데 조형물 위에 빔 프로젝트 영상을 투사시킨 작품 형태는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에 해당한다.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은 관객이 조형물의 물질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동시에 영상을 보기 때문에 영상만 볼 때와 달리 몸이 영향 받는 방식이 다르다. 조형 물질의 질감을 형태와 표면, 위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그대로 느끼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이 공간 안에 부피를 어떻게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형태인가는 그것을 보는 관객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작품이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메를로 뽉띠의 감각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에서 제시되는 3차원의 실제적인 조형물질과 그 위에 투영되는 2차원의 재생산된 영상 매체가 인간의 몸에 끼치는 공감각적인 면에 대해서 연구한다.

## 2. 영상과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일반적인 빔 프로젝트 영상 작품은 빔을 이용하여 벽면에 투사하는 방법이다. 벽면에 투사된 영상은 일종의 시각적 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환영이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존재물이 아닌 기계 메카니즘의 도움을 받은 시각적인 형상을 말한다. 영상은 환영이기 때문에 물체의 '구체적인 촉각성'을 갖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촉각성이란 공간에 사람과 사물이 같이 존재할 때 사물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표면을 만지는 것을 뜻하며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질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빔 프로젝트 영상은 이러한 형태의 직접적인 촉각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 현재 관객이 소속된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비물질적 공간을 제시한다. 영상은 2차원으로서 입체성을 지닌 사물이 아니며 그 물질성과는 별개로 스크린 위에서 생성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촉각성이 없는 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면에 투사되어지는 빛의 운동이기 때문에 관객의 시각은 단선적이다.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은 조형물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촉각성과 그 위에 투사되는 비 촉각적인 영상의 특성이 서로 조화되고 반영하며 새로운 감각으로 재탄생되는 장르라고 하겠다.

## 3. 뽉띠의 감각론과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메를로 뽉띠가 말하는 '감각'은 몸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온몸을 휘감고 도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1] 여기에서의 감각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개별적인 감각을 분리시켜 고려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가 받는 느낌을 말한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 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서로 뒤섞이는 공감각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들이 동시에 상호소통하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감각들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의 주행소음을 통해 도로 표면의 단단함과 울퉁불퉁함을 또는 '부드럽다'거나 '메마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2] 예술 작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조형물의 질감은 실제로 만짐으로써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 사물을 보면서 촉각적인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에서 "가촉적인 것 자체가 가시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각적인 현존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등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메를로 뽉띠는 말한다.[3] 본다는 것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질감을 시각적으로 만진다는 것이다.

### 3.1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이 주는 감각

조형물의 물질성이 제시하는 구체적 촉각성과 비물질적 공간으로서의 영상을 합친 형태는 관객에게 어떤 감각을 줄 것인가? 조형물만 따로 떼어 보면 재료, 무게, 질감, 색깔 등의 물질성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관객에게 공감각으로 다가온다. 여기서 공감각이란 시각적으로 촉각성을 느끼거나 공간성을 느끼는 등의 다층적인 것을 말한다. 영상은 주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환상을 보여준다. 사람의 눈이 사물의 질감을 만진다고 했을 때, 영상에서의 질감은 직접 사람의 눈을 통해 곧바로 보는 것이 아닌 카메라의 눈을 통해 2차원의 이미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조형물에서 얻을 수 있는 촉각성과 다르다. 그러므로 영상에서의 공간과 질감은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공간과 질감으로 인지된다. 영상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영상을 일종의 환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형물의 물질성과 영상의 시각성이 혼합된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은 영상만 개별적으로 상영되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 촉각성과 시각성을 동시에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간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가진 영상은 그 시작과 끝이 있어 시간적으로 진행되지만, 조형물은 여전히 설치되었던 그 자리에 다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영상이 끝나고 물질성이 완전히 드러나면 관객은 시각적 환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각자의 특성을 지닌 조형물과 영상이 혼합된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은 안에서 조화되어 새로운 통합적인 공간을 만들며, 그 조화가 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각각의 개별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공간으로 해체되는 것이다.

## 4. 작품 사례 분석

### 4.1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의 시발점

1960년대 활동했던 미니멀아트 작가인 댄 플래빈(Dan Flavin, 1933-1996)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물질 자체가 내는 빛을 통해서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채우고 조형물을 보는 시점의 가변성으로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감각적인 것이 인간의 몸 전체와 공간을 전율하게 하고 가득 채운다고 하는 메를로 펑피의 감각론은 작품의 형태와 위치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그가 당시 ‘미니멀리스트 예술의 중심 철학자’로 언급될 수 있었던 이유이며 작품의 형태, 위치, 표면과 같은 시각적 촉각성에 대한 연구와 밀접하다.[4] 미니멀리즘이 추상적이며 즉물적인 ‘물질성’의 강조를 보여준 시점이라고 한다면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은 ‘물질성’에 시청각적 환영을 더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니멀리즘의 형태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댄 플래빈의 작품은 조형물을 벽면과 평행하게 설치하거나 벽면에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거나 공간에 가로질러 설치한다. 공간을 고려한 설치 방법은 공간 안에서 조형물이 놓인 형태의 유동성을 드러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우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관객의 시각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몸이 받는 영향이 각자 다르게 해석된다. 또한 플래빈의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인 조형물을 주변 공간과 뒤엎힌 상태로 만들어주는 매개는 바로 빛이다. 이는 빛의 일종이자 시각적 환영인 영상이 조형물과 혼합되어 두 가지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 서로 얽혀있는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의 특성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Dan Flavin, untitled, 1989

### 4.2 환영과 조형물과의 경계

파블로 발부에나의 <증강된 조각 시리즈 Augmented Sculpture Series, 2007 (그림 1)>는 어두운 3차원의 공간에 세워진 미니멀한 육면체들로 구성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음악 리듬에 맞춰 빛을 투사하고 있다. 조형물의 도식적이고 기하학적인 측면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투사되는 빛의 움직임은 미니멀리즘적인 성격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니멀리즘(그림 1)의 형태에서 발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질성과 시청각적 환영의 조화를 보여준다. 특히 사각형의 모서리들을 따라 빛이 움직이는 과정은 마치 조형물이 캔버스이고 그림을 그리는 자는 빔 프로젝트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관객은 눈 앞에 부동하고 있는 흰색 육면체 조각들을 보고 매끈한 질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한 매끈한 질감의 촉각성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음악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빛이 조형물의 표면 위로 지나갈 때 관객들은 긴장감과 함께 물질의 촉각성이 아닌 빛의 환영만을 보게 된다.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은 물질과 환영,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혼란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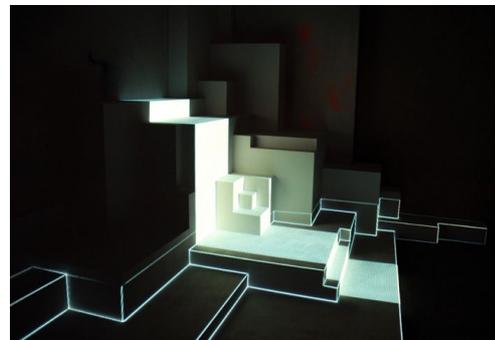


그림 2 파블로 발부에나, 증강된 조각 시리즈 (Augmented Sculpture), 2007

### 4.3 조형물 재료가 주는 촉각적 효과

다음 작품은 뮌(Mioon)의 <Human Stream, 2005 (그림 2)>으로 기존의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분야에서 조형물 재료의 가능성을 새롭게 타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사람 형상의 조형물을 흰 깃털로 덮어 그 표면에 군중들이 배회하는 영상을 투사시킨 작품이다. 수많은 깃털의 모습은 그림 1의 도식적인 조형물과 달리 작가가 직접 뼈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깃털 하나하나를 접착시킨 수공업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군중 영상이 끝날 때쯤 조형물 뒤에서 바람이 생성되면 깃털이 바람에 날리고 깃털의 표면에 투사되던 군중의 영상이 사라진다. 이때 관객은 영상이라는 환영에서 깨어나 현실 공간에서 같이 존재했던 깃털이라는 진실에 부딪힌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성한다. 익명의 군중이라는 무거운 이미지와 깃털의 이미지는 상충한다. 반면에 사회적 이슈에 쉽게 열을 올리다가 바로 무관심해지는 군중의 다른 면인, 가벼운 이미지는 깃털과 상충하는 아이러니가 만들어진다. 또한 깃털은 무게가 없는 물질이지만 거대한 사람 뼈대에 붙임으로서 가벼운 깃털의 이미지를 무겁고 진지한 이미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영상이 끝나고 깃털이 날릴 때 깃털은 본연의 가벼운 촉각적 이미지로 되돌아간다. 이는 조

형물 재료가 주는 촉각적 효과와 영상이 어우러져 강력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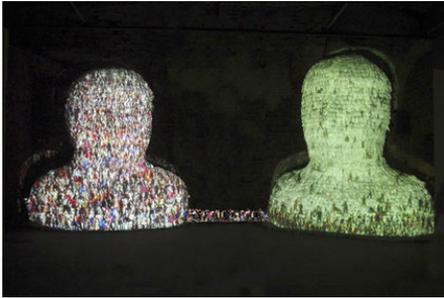


그림 3. mioon, Human Stream(인산인해), 2005

#### 4.4 일상적 오브제와 영상의 만남

토니 우르슬러의 〈We Have No Free Will, 1995 (그림 3)〉은 일상적인 오브제로 조형물을 만들고 그 위에 영상을 투사시킨 작품이다. 우르슬러는 의자 밑이나 서랍같은 일상적인 사물에 천으로 만든 오브제를 설치해서 천 위에 영상을 투사시켜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로테스크한 영상과 오브제, 청각적 자극이 총체적으로 합쳐 이루어지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물성만을 내세운 설치 작품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평면 모니터나 벽면을 평범한 오브제로 대체한 방법을 시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형이 가진 촉각성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은 그림 4는 마치 사람 얼굴을 가진 인형이 실제로 말을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림 5는 공간과 조형물의 조화를 보여준 토니 우르슬러 작품의 전시 전경이다. 공간 안에 여러 개의 구형 조형물을 매달아 놓고 그 위에 사람 눈동자의 영상을 투사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이는 단순히 벽에 영상을 투사시킨 기존 방법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조형물을 통해 공간을 점령하는 것이 아닌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벽면에 투사된 영상은 벽면의 공간과 관객의 공간과 이분법을 이루는 방법이지만 그림 3에서의 전시 방법은 관객과 영상의 공간이 조화를 이룬다. 이것은 영상의 촉각화이며 미니멀리즘의 특성인 작품의 '가변성' 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그림 3의 전시 전경은 작품이 장소에 따라 변하는 관객의 시각에 포함되어 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4. 토니 우르슬러, 전시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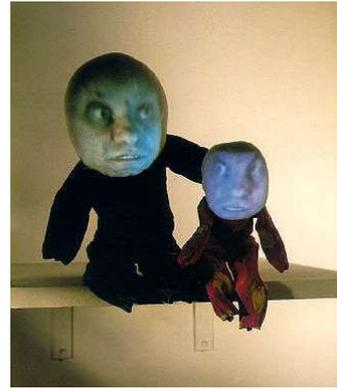


그림 5. 토니 우르슬러, We Have No Free Will, 1995

#### 5. 결론

많은 철학자들과 이론가들은 작품이 인간에게 주는 감각을 탐구해왔다. 현시대에 이르러 예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해왔고 특히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에게 주는 새로운 형태의 감각을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감각을 분리시켜 규정짓는 기존의 감각을 '혼성 감각' 이라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보아야 한다. 이전에는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의 다양한 장르들이 각기 독립된 존재로서 다루어졌고 전시되었다면 최근 들어서 혼합된 장르의 새로운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영상 매체의 경우는 그 비물질적인 공간성으로 인하여 적용 범위가 매우 탄력적이다.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에서는 이러한 영상 매체에 조형물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촉각성을 도입하여 물질과 환영의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각공간을 창출한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질감은 현실적인 촉각적 감각이며 조형물 위에 투사하는 영상은 비현실적인 시각적 감각이기 때문에 이 둘이 교감하는 새로운 감각이 태어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인스톨레이션이 인간에게 주는 혼성적 감각을 메를로 뽉띠의 감각론과 연결지어 탐구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미디어 인스톨레이션 작업을 미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 참고 문헌

- [1]M. Merleau-Ponty, 지각의 현상학, 서울, 한국, 문학과 지성사, pp.37~39, 1945
- [2]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서울, 이학사, p266~321
- [3]한국현상학회, 예술과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서울, 한국, pp.122, 2001
- [4]데이비드 베츨러, 미니멀리즘, 서울, 현대미술운동총서, pp. 24~26